

알면서 왜 안 믿어?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논의함

- 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 3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 4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종기와 다섯 마리의 금 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 5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 6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멩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두 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 내어 우리에게 넣으십시오.
- 8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 9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벤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 벤세메스로 곧장 가는 소들

- 10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 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매고 송아지들은 우리에게 가두었습니다.
- 11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 쥐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었습니다.
- 12 그러자 소들이 벤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벤세메스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 묵상하기

블레셋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몰고 오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려 합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속죄 제사의 종류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끝에 나오게 된 사건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3,6절).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와 믿음이 아닌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주변사람들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저 별받을까 두려워 정성을 보이는 숭배행위에 불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성에 충실한 소마저 본능을 거슬러 그분의 뜻대로 가게 하시는(12절)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배와 찬양, QT 등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둔 채 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인가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가요?
- ②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어요.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8 "여호와와 그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9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벤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 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매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11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궤와 금 쥐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12 그러자 소들이 벤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벤세메스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궁금 사전

*궤: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상자

*속건제물: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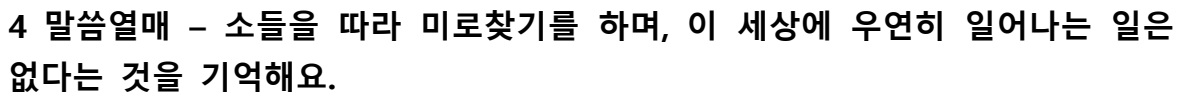
*종기:사람이나 동물의 피부가 끓아 고름이 차는 염증

*경계:땅을 나누는 선

· 말씀 씨앗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더니, 그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궤를 어미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기로 했어요. 소들이 벤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겠다고 했지요. 소들은 곧장 벤세메스로 갔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했어요.

○ㅎ○ ○ ○ ○ 께서 우리에게
이 큰 ㅈ○ ○ 을 보내신 것입니다. (9절)



5 기도하기

- 4 -